
아름다운
이야기
78th



< a watermelon salad >



서현종 (Seo Hyun Jong)

프로필(이력)

- 강원대학교 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 2016 "치타델레를 찾아서"
- 2017 개인초대전 "처음 뜨는 달"
- 2018 "봄 봄"
- 2019 "춘천 Blues" - 엄마의 꽃밭
- 2020 "청춘천"
- 2020 춘천생명의 숲 창립 22주년 초대전
- 2021 "Winter into Spring" 예담 갤러리 초대전

춘천시 춘천로 213번길 15-15
zigum02@naver.com



THE ARUMDAUN STORY
2021.7. VOL.78

가 볼 만한 곳 12

거제도 보타니아



특집 32

꿈자람나눔터



어부의 눈 04
동부이야기 06
기고 [바보 들고양이] 08
기고 [일대일 제자 양육] 10
가 볼 만한 곳[거제도] 12
간증문 16
간증시 20
쉬어가는 글 21
동부갤러리[화가 이성준] 22
신앙에세이[마중물] 24
연재[라떼파파] 26
연재[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23
寫春記 30
특집[꿈자람나눔터] 32
포토에세이 34
추천도서 35
동부소식 36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형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전 세계 속에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징어게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오징어게임 속의 의상과 놀이, 간식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정도였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깐부'입니다. '친한 친구, 짝꿍, 동반자'를 뜻하는 은어 · 속어입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하면서 서로 동맹을 맺을 때 "깐부하자"고 말하고 서로의 구슬이나 딱지를 모아서 공유했습니다. 많지 않은 딱지와 구슬을 다른 아이에게 잃게 되었을 때, 깐부로부터 비어있는 주머니를 채우게 되는 것은 마치 화수분을 소유한 듯 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자기의 구슬을 주고, 딱지를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 있는 관계인 '깜부'가 된다는 것은 보통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갑자기 한국 사회에 알려진 것은 <오징어게임>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오일남'이 '깐부'를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들이 몇 명이 뭉쳐 다니는 소규모 음악 밴드(주로 재즈를 하는)들을 미군들이 'combo(캄보)'라고 부르는 걸 본 우리나라 군인들이 항상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를 '깜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깐부'의 유래 중에 이 이야기가 가장 그럴듯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깐부' 곧 '친구'가 나옵니다. 어느 학교 게시판에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Free(자유로울 수 있고), Remember(언제나 기억에 남으며), Idea` (항상 생각할 수 있고), Enjoy(같이 있으면 즐거우며), Need(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고), Depend(힘들 땐 의지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 한마디로 깐부입니다. 사실 이런 친구를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포도나무' 밭으로 가

서 '포도나무'의 존재 방식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입니다.

'서로 사랑'은 복음서에서 40번 나옵니다. 그중에 요한복음에 27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11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말씀에 '서로 사랑'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서로 사랑이란 줄기인 물관과 체관을 통해 가지가 서로 공급받고,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는 '거하라'(abide)라고 말합니다. 이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뭇가지의 서로 사랑의 방법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지가 위로 자라도록 함으로 성장하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이런 서로 사랑의 방식을 포도나무를 통해 배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부를 때, 사울 왕은 얼굴색이 변하여 분노하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서로 묶여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권력이 다 자기 것이었고,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자기보다 어린 다윗을 도와주고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좌까지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막역한 친구사이'를 'David and Jonathan'라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 사이, 아니 더 친밀한 친구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앞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과 탄압, 희생과 순교의 때가 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힘들 때마다 포도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물관과 체관으로 양분을 이동시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열매 맺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연결되어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수님 한쪽만의 친구가 아닌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아니 '비욘드 코로나'를 맞이하며 우리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어떠하든 우리의 깐부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는 가지, 각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글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위임목사
서울장신대 겸임교수



두 엄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 야고보서 2장 22절–

"엄마". 많은 이들에게 엄마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편한 대상이다. 감사하게도 우리 엄마 역시 나에게 그러한 사람이다. 내 생애 첫날부터 나의 엄마였고, 나를 먹이고 입히며 키워내는 것에 청춘을 바치셨다. 그 숱한 희생과 헌신 덕에 나는 특별히 모난 곳 없는 유년과 청년시절을 보냈다. 아이가 있는 지금, 엄마라는 자리에 요구되는 책임과 감정의 무게를 마주하며 새삼 내 엄마의 지난 시간들을 그려 본다.

'엄마는 정답은 모를 수 있어도 틀린 답은 안다'는 말이 있다. 우리 엄마 역시 나에게 늘 옳은 답은 주지 못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도록 많은 희생과 고민들을 감내하셨을 것이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던 사랑과 헌신이 엄마가 되어서야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고, 엄마라는 존재의 위대함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나에겐 그런 위대한 엄마가 둘이다. 내 신앙의 방향성과 정도를 다져준 엄마. 그리고 신앙의 깊이와 방법을 일깨워준 엄마. 이 자리를 빌려 두 엄마의 위대함을 나눠볼까 한다.



첫 번째 엄마는 친어머니다. 엄마의 신앙의 뿌리는 새벽기도이다. 잠결에 들리는 현관문 소리는 새벽 다섯 시, 다시 한 번 들리는 경쾌한 현관문 소리는 여섯 시를 의미한다. 비가 몰아치거나 눈이 무



릎만큼 쌓인 궂은 날에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픈 날에도 새벽기도는 빠지는 일이 없으셨다. 한 번은 그런 엄마에게 집에서 기도드려도 되지 않냐며 굳이 예배당에 가야 하냐고 물었다. 엄마는 새벽녘 예배당이 당신에게 더없는 평안과 안정을 준다며 걱정말라고 말씀하셨다. 새벽기도는 엄마에게 치유의 빛이자 가장 큰 소망이었다. 15년이나 이어진 그 성실한 두드림은 결국 아빠를 교회로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생이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사회초년생의 시절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엄마의 새벽기도 덕분이었다. 삶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파도에도 엄마의 닻은 늘 하나님께 단단히 내려져 있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이자 특권이었으며 나 또한 가야할 신앙의 정도(正道)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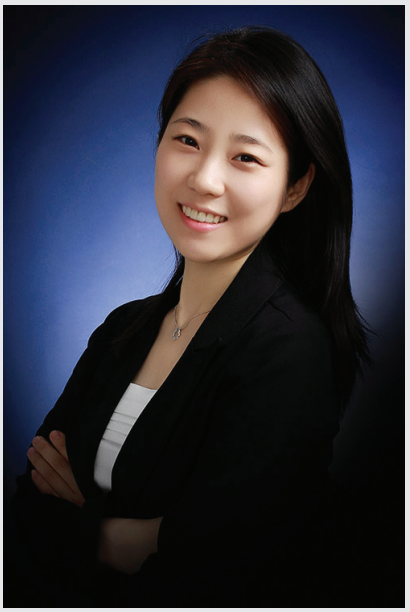
두 번째 엄마는 시어머니다. 엄마는 씨름선수, 그 중에서도 천하장사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서도 싸워 이겨내신다. 하지만 그 싸움의 대상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닌 문제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다. 엄마는 마음이 어려워지면 성경을 펼치시고 그 마음이 해결될 때까지 말씀을 붙드신다. 경기의 끝은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이 이기는 때이다. 한 번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통독 후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곧바로 신약을 읽기 시작하셨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다가오며 마음의 해결됨을 얻으셨고, 나에게도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다. 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엄마의 믿음의 깊이를 가늠케 하는 순간이었다.

최근 나는 일상의 작은 일로 마음이 다쳤던 적이 있다. 이를 엄마에게 털어놓았고, 엄마는 묵묵히 들어주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나를 푸른 산과 채소밭이 보이는 자리에 앉히시고는 주님이 지으신 멋진 창조물을 보며 마음을 다독여보라 하셨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웅크렸던 내 마음을 녹이시고 다시금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셨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보였고, 그를 붙들 때 내가 나됨이 은혜임을 깨달았다.

두 엄마의 위대함은 행함이다. 한나의 기도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행함, 모세의 순종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하는 행함. 두 엄마의 행함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 행함을 따라 주의 얼굴을 향해 나는 오늘도 걸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두 엄마의 영적 유산을 나의 자녀에게도, 그 다음세대에게도 반드시 물려주도록 힘쓸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름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 베드로후서 1장 10절–



글 5교구 채은혜 집사

바보 들고양이



회색털을 가진 들고양이가 쥐덫에 걸렸습니다.

아래 밭 한 모퉁이에는 울타리가 넓게 쳐진 닭장이 있습니다. 닭들이 낮에는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다가 저녁에는 닭장으로 들어가 잠을 잡니다. 이 닭장에 들쥐들이 드나들면서 병아리를 잡아먹고, 닭 사료를 먹고, 달걀도 훔쳐 먹곤 합니다. 그래서 닭장 주변에 쥐덫을 설치했습니다. 쥐를 세 마리 잡고 나자 그들의 출입이 뜸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쥐덫을 살펴보니 들고양이가 걸려있었습니다. 들고양이는 내가 다가가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애처롭게 나를 쳐다봤습니다. 들고양이의 왼발에는 덫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쓴 흔적이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덫으로부터 꺼내주려고 다가가면 갈수록 고양이는 하악질하면서 이리저리 도망가려고 날뛰었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했습니다.

'바보야, 가만있어, 그래야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지!' 라고 속으로 소리를 쳤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생각다 못해 작은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머리를 몇 번 때렸더니 기절했습니다. 그 후에야 억센 덫에서 고양이의 발을 꺼내줄 수 있었습니다. 덫에서 발을 꺼내주자 조금 전만 해도 기절해 있던 고양이가 눈을 번쩍 뜨더니 숲속으로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몽둥이에 맞아서 죽지나 않았을까 염려했는데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덫에 걸린 발이 심하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내가 집 근처에서 그 들고양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집 근처에 가끔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 딸, 조이와 샤론이가 들고양이를 위해 사료를 밖에 두었더니 먹고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사료를 먹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자 도망

가다가 수풀에 걸려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덫에 걸렸던 다리에 났던 상처가 썩어서 뼈가 드러나고 힘줄에 겨우 붙어있다가 그것이 수풀에 걸리면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먹지 못해서인지 몸이 바짝 말랐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상상해보았습니다. 동물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나서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조이와 샤론이가 용사란 뜻의 "마일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일로는 곧 자신의 놀이터가 있는 산과 들로 돌아갈 겁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수풀 속에 있는 멸치를 발견했을 때, 들고양이 마일로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는 덫이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기쁨의 탄성으로 멸치에게 달려들었을 겁니다. 내가 쥐를 잡을 때 사용하는 미끼는 마른 멸치입니다. 멸치를 쥐덫에 고정하고 쥐가 다닐만한 길목에 설치하고 주변을 어두침침하게 만듭니다. 쥐들은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힘쓰면서 다니다가 쥐덫에 있는 멸치를 발견하면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들쥐의 입장에서 보면 뜻밖의 좋은 일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치명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멸치를 먹으려고 덫에 올라가는 순간, 순식간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몸통이 덫에 걸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고, 다리 혹은 꼬리에 걸리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피를 흘리며 고통받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자기 몸에 깊은 상처를 입히면서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덫에 걸리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덫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덫은 보기에는 단순하고 허술한 것 같지만 매우 조직적입니다. 덫에는 스프링에 의한 엄청난 힘과 공포가 숨어있습니다. 스프링에 의해 긴장이 풀리면 사망이 어둠처럼 덮쳐버립니다. 쥐들은 동료가 걸려서 죽었음에도 같은 장소에 덫을 놓아도 또 걸려듭니다. 덫에는 뜻밖에 좋은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행운이라고 표현합니다. 뜻밖에 좋은 것, 그것도 너무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이런 것은 사탄이 설치해놓은 덫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덫에 걸린 들고양이처럼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죄의 덫에 걸려 고통받는 자신을 모를 수 있습니다. 들고양이가 몽둥이에 맞고 기절한 후에야 꺼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기절하거나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덫에서 꺼내줄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치명적인 환란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진짜 큰 사랑이 숨어있습니다. 완전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임하게 됩니다.

"바보야, 가만히 있어, 그래야 내가 너를 구할 수 있어!"
- 베드로후서 1장 10절-



글 **사빗홍 (사랑에 빚진 자 홍동완)**

기고

“네가 낳고 양육한 사람이 있느냐?”

일대일 제자 양육

일대일 제자 양육에 대한 소개를 부탁 받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춘천온누리교회에서 일대일 제자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배영미 권사입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이하 제자 양육)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1985년 서울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시작한 평신도 양육의 한 방법입니다. 교회 설립 초기부터 서울온누리교회의 양육 교재를 사용하여 담임목사님이 직접 일대 다수로 성도를 양육하셨습니다. 제자 양육은 성도들이 성도를 양육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부터 성도가 성도를 양육하는 일대일 제자 양육을 시작해 취지에 맞는 사역으로 변화시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양육하고, 예수님께서 열 두 사도를, 바나바가 바울을, 바울이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양육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은 성경공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춰 진 자신들의 모습을 교정하고 회복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사실적인 근거를 찾아 나누고, 양육자와 동반자가 이제까지 자신의 이성, 지식, 경험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고정 관념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제자 양육은 16주 과정입니다. 16주 동안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양육 교재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며,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배우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화답합니다.

기도에 대해 배웁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 하니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도로서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순종을 합니다. 순종은 사역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하시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관을 점검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16주 과정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글로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 나갈 일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삶에 실천하는 묵상을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나눕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격려하고 기도로 돕습니다. 양육자는 자신의 동반자가 또 한 명의 생명을 낳을 때까지 서로 교제하고 돌보고 함께 합니다.

동반자는 교회에 등록해 5주간 새 신자 교육을 받은 교인으로 양육훈련을 처음 받으시는 분을 칭합니다. 절차에 따라 양육자가 연결됩니다. 양육자는 동반자 과정을 수료하고, 교회의 훈련을 통해 양육자의 자격을 획득한 교인입니다. 양육자는 보여 지는 사람입니다. 아비, 어미의 마음으로 동반자를 양육하며, 동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양육자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하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 양육자입니다. 양육자는 바른 영성을 소유해야 동반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양육자들을 돕기 위해 양육자와 동반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탁월한 강사님을 초청해 양육 세미나, 묵상 세미나를 통해 풍성한 말씀의 천국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일대일의 특성은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양(육자)동(반자)이 축제'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땅에서 천국의 식탁 교제를 조금 맛보는 자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나 공동체의 모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제자 양육은 계속되었습니다. 10년 전, 제자 양육을 시작할 때 서울온누리교회 양육 담당 장로님이 8주 동안 춘천까지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저희도 주위에 양육이 필요한 교회에 양육자를 파송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은 한 사람이 제자를 낳으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사역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살았으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눈먼 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아버지가 안 계신 고아였습니다. 10년 전 양육자 교육을 통해 눈이 밝아졌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렸습니다. 주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낳고 양육한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다. 너는 생명을 나누었느냐?" 대답하실 말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를 낳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으신 분들입니다. 양육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28장19-20절 -



글 **춘천온누리교회 배영미 권사**

“이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바다 정원, 거제도~!”

여행이란 '집에서 멀고, 낯선 장소'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먼나라 여행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낯선 곳에서 이방인이 된다는 것, 사소한 일탈도 추억이 된다는 것이 해외여행의 작은 즐거움이었다. 무엇보다 집안일에서 놓여나고 끼니마다 반찬 걱정 하지 않으며 해주는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좋았었다. 해외여행을 우선으로 했던 여행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의 차이가 컸다.

억지로 발이 묶인 일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들었다. 코로나로 들고 낢에 제약을 받으면서 가까운 곳으로 눈을 돌렸다. 결혼기념일과 남편의 일이 끝나는 때와 맞물린 10월 중순을 여행 날짜로 잡았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거제도에 도착하자마자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하 수용소)'을 찾았다. 수용소는 거제 시내 한복판에 시간이 멈춰진 듯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곳엔 아직 전쟁의 상흔과 이념으로 얼룩진 포로들의 핏발 선 외침



이 남아있었다. 당시 포로수용소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1951년 6월까지 북한 인민군 포로 15만, 중공군 포로 2만 명 등이 수용되어 있었다. 전쟁 발발 1년 만에 휴전 회담이 시작되었고 포로 송환문제가 논의됐다. 북한은 포로 전원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연합군 측은 제네바 협정에 따른 자유 송환을 주장했다. 강제징집 당한 반공 포로는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했고 송환을 원하는 친공 포로간의 유혈사태가 자주 발생했다. 1952년 5월7일 제76 포로수용소의 공산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공산 포로들은 수용소장을 납치하고 석방 조건을 내세워 미군과 대립했다. 공산 포로들이 반란을 일으켜 발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다. 반공 포로들이 100여명의 친공포로를 살해하는 등 수용소 내의 분열도 전쟁만큼 참혹했다.

수용소 밖은 전쟁을 기억하지 못했다. 휴전 68년,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분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전쟁은 잊지 말아야 할 민족의 비극으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과거로 기억되고 있다. 오늘의 평화는 피로 산 아픔의 산물이다. 종전 후 수 십년이 지나는 동안 수용소는 잔존건물 일부만 남아있었다. 1999년 터만 남아있던 유적지를 확장해 1차 개관을 했다. 2002년 유적공원을 준공하고 2005년 흥남철수작전 기념 조형물을 준공해 유적공원으로 확대했다. 전쟁의 산 역사의 현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새벽 5시, 해가 돋기도 전이다. 10월의 새벽하늘은 어두웠다. 등대는 어둠에 갇힌 밤바다를 향해 불을 반짝였다. 수평선에 점점이 박혔던 불빛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밤새 그물을 내렸던 어선들의 행렬이었다. 항구는 어슴푸레 할 짬도 없이 아침을 맞았다. 엊저녁 뒷산 해넘이를 시작으로 자맥질을 했던 해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거제도 지세포항에 아침에 밝았다. 전날까지 험했던 파도가 잠잠해졌다. 사흘이나 끊어졌던 뱃길이 다시 열리자 항구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튿날 유람선에 올라 외도로 향했다. 외도보타니아는 지세포에서 4km 남동쪽에 위치한 해상농원으로 뱃길로 10분 거리다. 유람선은 인근 해금강(명승 제2호) 주변을 선회하며 풍광을 보여줬다. 사람의 발길을 반기지 않는 듯 해금강 주변은 거센 파도와 바람이 잦아지질 않았다. 외도로 가는 길엔 갈매기 떼가 동행했다. 갈매기들은 관광객이 던져주는 과자를 받아먹으려 항구를 출발하는 배



를 따라 날았다. 코앞에서 날갯짓하는 갈매기를 마주하며 마치 3D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수 백 마리의 갈매기가 배 위를 선회하며 과자를 기다렸다. 공원의 비둘기가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외도는 전기, 통신 시설은 물론 변변한 정박 시설 조차 없는 섬으로 10여 가구가 농사를 짓고 살았다. 이창호(2003년 작고), 최호숙씨 부부가 1970년부터 3년 동안 섬 전체를 사들였다. 감귤나무와 편백나무 등을 심어 농장을 조성했으나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다. 이후 30년 동안 섬 전체를 식물원으로 가꾸었다. 1990년 건설부로부터 문화시설로 지정받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편입됐다. 5년 후 외도해상농원을 개원해 2008년 1월까지 100만명의 방문객을 맞았다. 외도는 거제에서 으뜸가는 관광지다. 갖가지 모양으로 가꿔진 정원수와 장식물 등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구엘공원을 연상케 했다.

외도보타니아엔 일 년 내내 꽃이 핀다. 종려나무, 워싱턴 야자, 스파르디움 등 내한성이 강한 식물들이 자란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동백나무가 꽃을 피운다. 외도의 10월은 늦여름처럼 더웠다.

거제 남쪽 학동흑진주몽돌해변은 검은 돌멩이들로 채워져 있었다. 거제 사람들은 검은 돌을 흑진주라 부르며 아꼈다. 파도에 젖을 때마다 제 몸뚱이를 굴리며 반짝거렸다. 검은 돌들을 쓰다듬으며 바다로 달아나는 파도의 행렬을 보았다.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제가끔 다른 소리를 내며 바다로 떠나는 파도를 붙들었다. 주판알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엄지와 검지로 가르는 소리가 났다. 촤르르르…! 파도의 강약과 바람의 크기에 따라 다른 소리가 보태졌다. 파라솔로 채워졌을 한여름의 기척은 없다. 들끓었던 늦가을 남해의 해는 기진한 계절을 붙들고 뒷산으로 넘어갔다. 거제도의 해안길은 바다를 끼고 굽이치듯 이어졌다. 강원도 산골짜기 도로 만큼이나 험해 정해진 속도도 내지 못했다. 대신 구부러진 도로를 달리는 동안 해안을 따라 오밀조밀 들어선 마을들을 맘껏 볼 수 있었다.



외도 보타니아

춘천에서 거제도까지 490여 km로 1,200리가 넘는 거리다. 쉬지 않고 자동차로 5시간 반을 달려야 하는 먼 길이다. 더 나이 들면 자가운전이 힘들 것 같아 엄두를 냈다. 통영을 지나 거제도로 들어갔으나 올 때는 반대편 부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유명하다는 거가대교를 지나고 싶어서였다. 거가대교는 거제도와 가덕도를 잇고 부산에 닿는 8,2km 교량이다. 가덕도와 대죽도 간 3.7km는 해저 침매터널은 갖가지 세계 기록을 보유했다. 1994년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계획이 고시된 후 착공까지 20년이 소요됐다. 건설 기간은 2004년부터 6년 간, 2010년 12월 준공됐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거제까지의 거리가 140km에서 60km로 단축됐다. 통행시간도 2시간1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되었으니 통행료 10,000원이 비싼 것은 아니다.

'국토의 재발견', '한국의 나폴리'…, 우리 땅에도 세계 어느 곳 못지 않게 곳곳에 비경이 숨어있었다. '숨어있다'는 말 자체가 얼마나 외람된 언어인가. 늘 그곳에 있었음을, 찾으려고도 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무심함이 만들어낸 말이다. '젊을 때 먼 곳으로 여행하고 나이 들면 가까운 곳으로 여행하자'는 생각을 고쳐먹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만이 내 것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 여행이었다. 거제 서편은 미처 돌아보지도 못했다. 2박3일의 일정으로 거제를 다 돌아본다는 것은 무리다. 다녀보지 못한 서쪽 해안은 내년 가을로 미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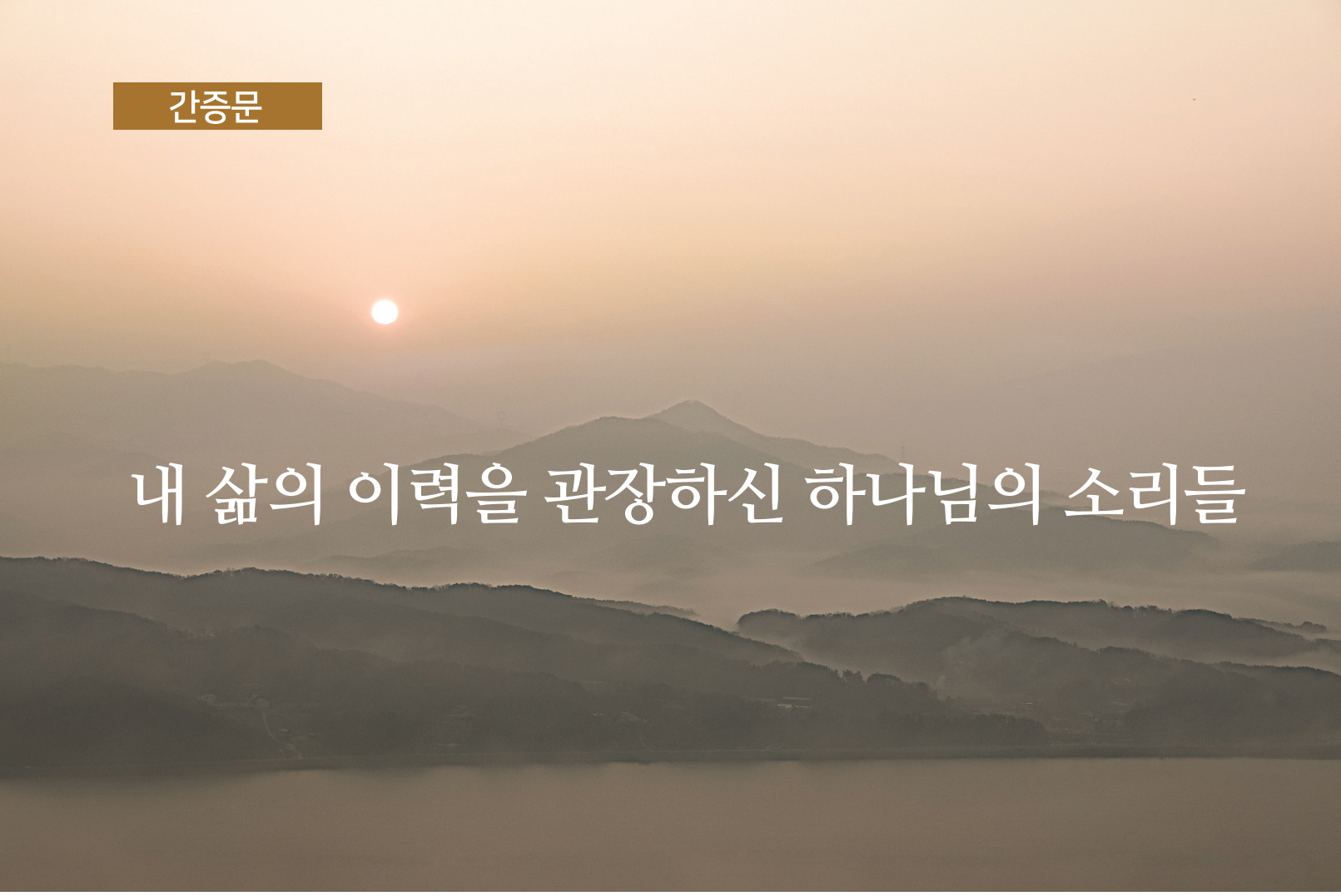
춘천이 가까울수록 가을빛이 짙어졌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겨울 채비를 서둘렀다.

글 전경해 집사



유람선 갈매기

간증문



내 삶의 이력을 관장하신 하나님의 소리들

아름다운 이야기에 실릴 기고의 청탁을 받고 거절하지도 못하고 수락을 한 지 두달이 지나간다. 뭐든 미루는 일 없이 맡은 일은 꼬박 밤을 새워서라도 해 내던 것을 어쩌자고 여태 한 페이지도 못쓰고 미루는 심사는 무엇인지, 되돌아보니 부끄러움만 가득한 삶의 이력이라. 무엇을 더 쪼개야 할까? 무엇을 더 부셔야 할까? 무엇으로 광야의 바람에 젖은 옷깃 말려야 할까? 어디까지 들추어 이력의 본 을 정자(定字)처럼 쓸 수 있을까?

삶의 이력으로 부터 나를 변호하기 위해 수치와 잔혹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고, 한계점에 서서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피해 그늘에 쉬고 싶은 나그네 모습이 보일 뿐이다.

구비구비 돌아오는 세월과 함께 어느새 육십의 중반에서 서서 희로애락의 오미(五味) 맛 그 인생의 파노라마 펼쳐보니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었음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성전의 불을 밝히려 내려간다. 지성소에서 고요히 그분의 음성을 구한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일어나 창을 열어보니, 북위 45도 북해도 시베츠의 새벽 하늘은 고요하지만 울렁찬 동녘의 소리가 울렁인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반짝이는 별과 달, 바람과 구름은 서로를 조우하며 어깨를 맞대며 정답게 무리지어 몰렸다가 흩어진다. 곧 붉은 해가 어둠을 거두며 창세 때와 동일한 계명성(啓明星)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북위 북방 45"

이름없는 작은 소도시 북해도 시베츠를 창조로부터 이 땅을 조성하신 한 분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는 벌레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대신하며 연약함을 올려드린다. 오래된 묵은 땅을 능히 갈아엎을 그 분의 손에 든 새 쟁기의 번뜩이는 광채를

본다 .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여! 당신이 내 삶 안을 갈아 엎으시며 기경하실 때 내시던 굉음의 소리들을 다시 들으며 고운 에바가루 한주먹이 되지 못해 떡 반죽을 빚지 못하는 나의 죄성의 뿌리가 이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한다. 어느 작은 한 귀퉁이에서라도 이 연약한 자를 통해 당신이 역사하시며 관재하셨던 그 많은 눈물의 밤과 환희의 아침을 당신이 기억을 소환시켜주시는 데로 낱낱이 보여주시길 바랄뿐이다.

주님! 순간 순간마다 역동의 감격으로 지금도 내삶을 흔들고 계시는 신실한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를때마다 감격의 기쁨이 솟아 오릅니다.

비록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 아무도 기대하지도 기도하지 않는다 할찌라도 당신이 친히 손끝으로 지명한 땅이다. 기름진 아름다운 땅에서 솟은 초원의 기슭들 헐몬의 이슬처럼 영롱하게 흐르는 강물의 맥을 따라 양떼들은 배가 부르고 소떼들은 배를 엎드려 되새김을 하고 오곡의 풍성한 풍년의 볏단이 가이 없이 펼쳐진다. 하늘은 보석을 달아놓는 듯 빛으로 찬란하다. 온몸을 붉은 황혼으로 물들여지는 저녁의 해 노을. 그러나 이곳은 배부른 애굽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우상의 도시 하란땅이다. 이곳에 유일한 이방인 한 가족이 자비량 선교로 "도호쿠 크리닉"과 고령자 임대주택 "시온"을 운영하며 이 땅의 거민들을 섬기고 치료하며 지난 10년간 머물라 하신 이 땅을 품으며 아직 열매 한 다발 드리지 못했다 할찌라도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실 때 주셨던 이사야 59장~62장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

비록 지금은 열매없는 소출일지라도 분명 울며 씨를 뿌리는자는 기쁨의 단을 거둘것을 믿기 때문이다. 반경 5킬로의 길을 걸어도 양 좌우 걸어다니는 사람의 그림자를 볼 수 없는 넓은 땅. 이 땅을 향한 가슴 터질듯한 울음으로 땅을 밟으며 축복할 때마다 내 귀에 다정히 들려주시던 주님의 음성. “탱큐! 나의 딸 탱큐 오래 오래 기다렸단다. 누가 이곳을 황폐하다 하더냐? 누가 이 땅을 권능이 떠났다 하더냐? 그들은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어디에 있었다고 하더냐?" 지금 이때에 때를 놓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에 때를 놓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때에 때를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성전의 불을 밝혀 기도합니다.

지금도 일상에서 겪어내고 이겨내고 싸우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지, 실패는 왜 하게 되는지? 미련했던 나의 지난 모습을 고백하고자 한다.

한편의 소설 같은 간증 픽션을 나누고자 한다.

이 분은 예수그리스도

무한한 동력이셨던 분이시요, 까마득한 죽음의 절벽이셨던 분이시요, 끝없는 미로의 절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요, 폭풍속의 번개같은 분이시요, 고통의 진액이 마를 때까지 침묵 하시는 분이시요, 배신과 수치의 친구가 되도록 숨으신 분이시요, 품성(品性)의 계도(啓導)를 가르치시는 분이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는 분이시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울부짖음 의 신음으로 혀의 마비를 풀지 않으신 분이시요, 억울하게 참소를 당하던 모습을 지켜 보시는 분이시요, 고난의 봇짐을 지게 하신 분이시요, 훔치지도 속이지도 않았음에도 물어주며 도륙을 당해도 묵묵하하 하신 분이시요, 나의 온몸과 영혼이 부르짖 듯 그 분의 도움을 청해도 숨어버리신 분이시요, 죽음의 길을 떠나 진주문 앞에서 나를 가로막아 다시 돌려보내신 분이시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지혜는 짙은 향수에 젖어 죽은 파리의 악취처럼 위선과 교만의 악취가 코를 찌를 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콧물과 오물을 묵묵히 닦으시던 분이시요,영적 불구의 절름발이로 비틀대면서도 푯대를 향해 달리던 순종의 바톤 조차 놓치고도 지식(말씀의 지혜)이 없어 무너질 모래성의 성곽을 높게 쌓던 한줌거리 어리석은 일개미의 허리도 짓밟지 않으시던 분이시요, 문제는 올려드리고 해답은 내가 적어내던 엉터리 답안지를 보시고도 가만히 접어 기다리시던 분이시요, 사랑할수 없는 원수조차 네 몸처럼 사랑해 줄수 있니? 라고 익히 할 수 없는 자 임을 아시면서도 신뢰하시는 분이시요, 오직 한

간증문

가지 꿈을 향해 달려온 거짓과 사기로 우리 가족과 나의 삶을 가위로 오려내 듯 한자락도 남기지 않고 도륙해버린 원수를 날마다 용서하지만 날마다 용서가 되지 않는 나에게 너의 죄 값이라 하신 분이시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겠노라고 항변하던 나에게 너는 나처럼 죽었니? "얘야 딸아! 그럼 나는 너에게 누구니?"라고 못박혀 피 흘리신 두 손을 내 손등에 올리시며 깊이 깊이 우시던 분 이시요, 광야에 이르러 펼쳐질 고난의 길이 내 앞에 있음을 알고 친히 보좌의 당신을 보여 주시던 분이시요, 새벽 이슬을 머금은 푸른 초장위에 펼쳐진 연한 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던 날의 감격을 주신 분이시요, 1973년 7월 대낮 호렙산 기도원에서 광합의 뚜렷한 빛의 속도로 당신의 보좌로 나를 데려가 들려주시고 보여 주시던 내 평생의 신비로운 방언의 찬양을 허락하셨던 분이시요, 고단한 인생길에 넘어지며 쓰러질 때도 그 찬양의 소리로 구원의 손길로 내 뒤에 서 계시던 분이시요, 아직도 흐려지지 않는 뚜렷한 기억의 페이지 빛의 보좌를 향해 원판의 도르래 위에 각양의 모습을 한 인간들이 심판대로 끌려가는 아비규환의 소리를 듣게 하신 분이시요, 원통의 이를 갈며 무참하고도 두려워 떨던 사람들의 소리들을 지금도 수시로 들려주시는 분이시요, 그 소리들이 진공관을 통해 내 귀에 확연하게 구분되어 들려지던 소리, 소리들을 통해 세상의 죄를 보여주시던 분이시요.

찬양소리, 기도소리, 비명소리, 속이는 소리, 이간하는 소리, 탐욕이 번득이는 소리, 간음자의 소리, 음욕의 소리, 배반의 소리 교활의 소리, 중보자의 소리, 침묵의소리, 바리새인들의 소리, 신원하는 자의 소리, 성령을 방해하는 자의 소리 , 고아와 과부의 소리, 자살하는자 들의 소리, 우상과 엉킨 자의 소리, 칼을 가는 살인자의 소리, 원통을 풀지않는 자의 소리, 하나님을 모욕하는소리, 위선자의 소리, 저주와 축복을 한입에 단 자의 소리, 거짓 저울의 소리 추를 속이는자의 소리 성전을 욕되게 하는 소리, 혼돈의 소리, 판단의 소리, 비방하는자 소리, 변덕자들의 소리, 인색한 소리, 세상과 신접한 야욕의 소리.



소리의 소리가 엉킨 혼돈 속에서 보좌의 빛 앞에 쓰러진 내게 빛의 광폭으로 열쇠꾸러미를 내 손에 쥐여 주신 분이시요, 귀신을 보고 쫓게하신 분이시요, 사단과 싸우는 담대함을 주신 분이시요, 사단의 혀 밑 붉은 간궤를 보게 해주신 분이시요, 앉고 서는 것의 진실의 무게를 달아보는 소리, 고통의 불길에서도 여호와를 찬미하는 향기의 소리, 죄의 유혹에서 승리한 자들의 기쁨의 소리, 과부의 두 렙돈을 귀히 받으시던 사랑스런 미소의 소리,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의 진한 향기의 소리, 땅을 이불처럼 거머쥐고 바퀴벌레를 털어내듯 악한 자를 털어내는 소리, 새벽을 열기위해 작업을 개시하시던 소리, 구름의 주위를 끌어 비를 만드시던 소리, 제어할 수 없는 바람을 상자에 가두시던 소리, 파도의 높음과 간격을 조율하시던 소리, 달과 별을 이동시키는 바람의 소리,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을 제자리에 박아 넣으시는 소리, 그리고 한 점보다 작고 부셔질 연한 나뭇가지 같이 한없이 작은존재의 내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울던 나의 통곡소리, 통곡의 메아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시던 비단 옷자락 소리, 우리 인생이 풀잎같이 부서지던 흙의 소리, 무너진 터에 황망히 서 있을 때 조용히 그때 본 빛으로 다시 오시던 소리, 당신의 뜻을 부인하며 고집하던 내게 아픈 회초리로 치시며 당신이 우시던 소리, 캄캄한 영적 불모의 메마른 오지 이방의 땅에 한 조각의 열매조차 열리지 않는 나무에 오늘도 물을 주며 지친 나에게 가만히 다가와 손 내미시

는 성령의 소리,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완고한 불의가 진리라고 우기며 달려가던 가짜 의로움에 속아 경고 등을 무시한 체 달려가 절벽 돌깃 모퉁이에 떨어져 대롱대롱 매달려 포기하고 싶던 나의 숨소리에 은혜의 돌풍을 일으켜 생명의 밧줄을 잡게 하신 분.

아아 !!! 놀라워라

2018년 7월 19일 아침 갑자기 급성 췌장으로 쓰러져 4%의 불가능한 생존률의
급박한 시간에도 순간 잠깐 아주 잠깐 또렷이 들리던 나의 죽음의 예견 소리가 내겐 평안의 나팔소리로 들렸다. 눈을 뜨고 보니 천국이 아니라 고통의 단말마 속에 침잠해 있었다. 죽어간 세포들이 다시 소생할 확률은 의학적 판단으로 모호했다. 오장의 장기가 췌장의 염증으로 오염되어 녹았을 꺼라 짐작하여 배 깊숙이까지 개복하여 열었던 수술방에서 기적의 탄성소리가 났다. 이럴수가!!! 후복막 쪽에 고름주머니가 터지지 않고 강보에 쌓인 듯 장기손상이 전무했다. 집도의의 "기적이야 기적이야" 소리만 들렸다. 나를 위해 중보하던 전세계 기도의 동역자들의 눈물과 금식이 보좌를 움직였고 자격박탈로 다시 이 땅에서 눈을 뜨고 제 발로 걸어 나가기까지 52일의 홍해를 건넜다.

"그건 결국 내 속에 수 만가지의 나의 소리였다" 부폐한 나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였다.



그 소리들을 들으며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럼 그럼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공수레 공수거의 쳇바퀴 였는가? 깊이 조명하며 회개하며 되돌이키며 굳게 일어서는 겸손한 속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그 갈등의 첫 페이지는 저항할 수 없이 다가오셨다. 사랑의 육박으로 초청하신 빛된 주님을 조금이나마 함께 동행이 되길 소원하며 두서 없지만 용기를 내어 믿음을 나눈다.

매일 매일이 기적이었던 마가 다락방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의 간증이요 증거가 내 삶 전부라 믿었다. 도대체 어디에 숨었단 말인가? 절망과 실패에서 새 터를 세우게도 하셨던 것은 또 무엇인가? 일본이 싫어 발버둥치던 나를 사지를 꺽어 조각내어 무조건 순종으로만 달려가게 하시더니? 육신이 만신창이 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소명 앞에 헌신은 또 무엇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꿈꾸며 울며 씨를 뿌린 지난 15년은 또 무엇인가? 온 가족이 이 땅에 부르심을 감사히 받으며 의료인의 길을 떠나 순적한 길을 두고도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가족들의 헌신은 유익한 뜻인가? 재물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으시던 시아버님 당신 스스로 가 맘몬의 신이 되어 당신 지배를 거절하던 내게 상상할 수 없었는 핍박과 박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주님은 시아버지를 주님의 품에 안겨 고요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하셨다. 이토록 견고한 믿음의 장벽이 이렇게 허물어 무너짐이 가능한가?

이 무너져 내리는 나의 헛 벽의 허공을 치고 바라보는 무질서한 혼돈의 소리, 허물어져가는 영혼을 안고 울부짖는 나의 소리, 죽을수도 살수도 없는 절망하고 깜깜하고 방 까마득한 절망의 뿌리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 차라리 무디고 무딘 쟁기라면 차라리 좋았을 뻔 했다는 내가 내게 비웃던 소리, 그러나 이사야 61 장을 선포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 하며 하려 함이라"

글 김재연 권사

간증시

어린 새끼들

백 혜 자

요 말랑말랑하고
동글동글한 것들
세상 시름에 물들지 않은
티 없이 맑은 눈동자
모든 것이 처음인 요것들

하룻강아지 범 잡듯
그 야성으로
그 순수로
험한 세상을 헤쳐 갈
세상에 모든 어린 새끼들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기도를 올리게 하는
망가질 듯 연한
희망들
세상의 모든 어린 새끼들

우리집

이 미 영 집사

60년 세월의 흔적이 서까래와
대들보 황토흙으로 살아 숨쉬는 집

정남향으로 사방이 유리 창문으로
햇살 가득 부엌 창문으로 아침을 알리고
거실 창문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보이는 집

고개 들어 저멀리 대룡산 자락이
더멀리는 삼악산이 보이는집

캄캄한 밤이면 고속도로 가로등이 아름답고
별빛이 보석처럼 보이는 집

가만히 귀 기울이면
어느새 들려오는 바람 소리 새 소리
개구리 울음 소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치유가 되는 집

가끔씩 텃밭에
나비 비둘기 참새 오리도 와주는
조용하고 한적한 집

욕심을 내려놓고 욕망을 줄이니
어느새 행복이 마음 한가득
이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재질이 단단한 참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타닥거리지 않고, 불꽃이 화려하거나 높지도 않으며, 엷은 푸른 빛으로 오래오래 잘 타서 믿음직합니다.

참나무는 소리 없이 타면서 다른 것들의 밑불이 되어주고 타다가 꺼지면 참숯이 되어 다시 불씨가 되어 줍니다.

사람들 중에도 말 없이 타오르며 다른 사람의 밑불이 되어주고 따뜻한 온기를 내는 참나무 장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겸손,
용서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외롭고 소외된 마음들을 한껏 보듬는 뜨거운 사랑,
먼저 헤아려주고 먼저 아파해주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밑불이 되어주는 행동이
아닐까요?

거침없이 큰 목소리를 내며 타오르다 이내 불꽃이 사그라지고 마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은근히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은 참나무 장작같은 믿음직한 사람들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불꽃의 키도 높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또한 굳이 이기려고 남을 해하는 일도 없고, 굳이 빼앗으려고 차례를 어기는 일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선한 분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따뜻한 인간애와 생명력으로 끈질기게 승부하며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꿈과 끈기와 열정이 있는 사람들...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며 진정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참나무 밑불과 같이 선한 불꽃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는 날마다 행복하고 고되다

화가 이성준 "예술적 조형성과 호흡으로 캔버스에 생명"





그의 작품은 4도 이상 중첩된 무수한 독립적 컬러 이미지 위에 한 톨 한 톨 백색 유화물감이 다양한 형태로 올려진다. 올려진 물감 조각들은 각각의 이미지로 존재한다. 그 이미지들은 단단하고 조밀하게 얽혀 특정한 색이 아닌 다양한 미적 감정들로 구성된다. 미적 감정들은 캔버스 위에 입혀진 기본색 위에 프리즘 효과를 연출하고 최종 화이트 입방체의 각 면에 부딪혀 굴절 · 반사된다. 온화한 색감으로 작품은 하나의 독립된 생명으로 존재한다. 작가는 빛으로 창조하고 지배하는 권위자로서의 예술가가 아닌 화이트 프리즘의 매개자, 색의 온도를 전하는 전도사로 이해되길 바란다.

색의 계절(Color Garden) 위로 눈이 내리듯 백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고요히 멀어지길 반복하다 어느덧 길게 들이마신 호흡이 멈춰지는 결정의 순간에 몰입하게 된다. 끝이 아닌 멈춰진 순간은 그가 빚어낸 화이트의 계절이다. 폭발하듯 점점이 흩어지고 다시 모아진 터치들은 조명에 먼저 닿고 반사와 굴절을 거치며 깊은 내면의 원색에 침잠한다. 지난달 홍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이성준(43) 화가를 만났다. 개인전 'Color Garden/White of season'이 9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홍천과 서울, 원주에서 열린다. 98년부터 50여 회 단체전에 참여하고 10여 회 개인전을 열었다. 삼탄아트마인 입주작가, 춘천서브컬쳐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독일과 국내 유수의 갤러리에서 독특한 작품세계와 예술적 역량을 표출해왔다. 코로나로 세상이 들끓어도 그는 여전히 창작에 매진하며 지난하고 고된 작업을 잇고 있다. 2012년 고향 홍천으로 돌아왔다.

이 작가는 홍천고를 졸업하고 한성대 예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했다. 사실 산업디자인(Design)을 전공하던 그는 고민, 끝 재수 끝에 회화과로 입학한 것이다. 대학은 보통의 미술 대학들처럼 화가를 배출하는 곳이 아니었다. "사고의 틀을 바꿔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적인 글로벌 작가를 양성하는 곳이다" 졸업 후 진로를 놓고 고민했다. 그는 "학위 후 임용 준비를 위해 학교에 남을지, 새로운 세상에서 미학에 대한 안목을 넓혀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며 "미술은 대학 교육으로 족했다. 그림은 손기술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과 더불어 철학적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나의 작품에 깊이를 더하고 미적 관점의 폭을 넓히고 싶었다." 20대 중반인 2005년 군 제대 후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향했다. 당시 독일 화단의 새로운 시도인 개념미술(전위미

술)이 시류를 이끌고 있었다. 이 작가가 도착한 곳은 독일 남서부의 슈투트가르트, 작업실을 마련하고 작업과 입학 준비 중 한 화랑으로부터 전속작가 제의를 받기도 했다. 철학으로 창작의 근육을 키우려던 계획은 미술 작업 중 사고로 무산됐다.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대학 초반 관심 있던 독일의 전 현대 전위미술 등 새로운 시류에 눈을 떴다. 발품을 팔고 현장을 다니며 안주했던 세상에서 벗어났다.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전업 작가로 살아남기 위해 창작에 몰입했다.

"아스피린과 브로첸 (Brotchen : 독일 빵), 독일 국기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민족적 정서가 강하게 남았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독일의 국가적 정서에서 창작의 모티브를 얻었다. 아스피린 포장지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고 내 방식의 해석으로 창작의 소제가 됐다." 이 작가는 크리스천이다. 독일 유학시절 이 작가는 독일 한인교회와 교민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2012년까지 5년 동안 도르트문트에 머물며 전업 작가로서 발판을 다졌다. 유망한 청년 화가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듯 유학시절 전시회로 독일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최소한의 물질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창작에 몰두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가 전하는 색의 온도는 모든 빛을 가두어 낸 백색이다. 백색은 눈처럼 수많은 색을 덮어 '백색의 정원'에 내린다. 이 작가에게 색이란 단순한 시각정보로 인식되고 학습된 소비적 물성이 아니다. 인간과 대자연의 관계는 모든 생명성에 근거한다. 작가의 예술적 지표 또한 '회화 생명력의 증거'다. 그는 "작가의 언어는 예술적 조형성과 호흡으로 가다듬어져 비로소 캔버스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작품들은 빛을 색으로, 다시 감정의 온도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창조된다"며 "작가에게 예술은 생명의 온기와 세상의 빛, 자연의 기운과 영혼의 자유로운 색으로 빚어져 존재한다. 회화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빛의 재현과 해석"이라고 했다.

닉네임 '워키스트(wOrkist)'는 Worker(노동)와 Artist(창작)를 합성한 단어, 그것에서 느껴지듯 그는 작업자이며 예술가다. 창작을 위한 고뇌, 작품을 완성 시키는 노동은 동일한 가치로 작품에 녹아있다. 100호 그림 한 점이 탄생하기까지 190~200여 시간의 몰입과 120만 번 이상의 터치(붓질)가 요구된다. 이 작가에게 화이트는 출발의 색이며 다시 시작하는 의미다. "한국인의 정서는 백색에 가깝다. 백색은 모태와 헌신의 색이다. 모든 색의 합은 블랙이고 빛의 합은 백색이다. 빛은 태초의 언어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그는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그림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그는 '작업자이며 최초의 관람자'다. 화실을 떠난 작품은 스스로 살아남아 관객과 대화한다. 화가의 작품은 고통의 결과다. 잠자고 꿈을 꾸는 시간에도 그는 캔버스를 벗어나지 않는다. 치열하게 스스로를 격리시키며 그림에 몰입한다. 작품에 몰두하는 시간은 자신을 발견하는 행복한 시간이다. 그는 날마다 행복하고 고되다.

글 아름다운 이야기 편집부

나는 예술과 철학 그리고 미학적 조형성의 관계에서 최대한 이성의 언어로써 명확한 작업적 지표(Visual, Power, Concept)를 위해 고민하고, 이해하길 바란다. 또한 소위 작업 행위나 그것들을 위한 애초의 동기와 근원 등을 개인의 진부한 재능이란 이름의 단순한 기술적 재현과 관념화된 사적 스토리에 근거하길 거부한다. 객관적 '조형성의 완성' 그것을 위한 노력이 학문하는 자로서의 탐구하는 자세이며, 그 자체로 중대한 미학적 도전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조형적 요소들과의 대화 속에서 무한히 폭 팔 하는 색(色)과 함께 유기체적 형(形)과 무의식의 공간을 연출한다.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미학적 대화의 무한적 확장을 위한 시도를 계속한다. 그 대화의 이성적 조형 언어가 감성의 향(香)으로 흩어지길 바라며...

- 작가노트 中 -



구름마저 하품하는 오후
한 동이 마중물이
어둠 땅속 아래로 내려간다.
온몸이 부서지고, 대신
햇살을 머금고 희망의 무지개로 뜬 물.
한 동이 마중물이 사람을 지킨다.
〈졸시 마중물〉

허공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흩어지는 물비늘. 어린이들의 얼굴 위에서 무지개를 일으키며 햇살에 반짝였다. 아이들 마음을 살리고 몸을 일으키는 보석들이다. 물보라에 우물가의 아이들 모두가 동글동글 꽃망울처럼 피어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시원한 물방울을 맞는 아이들의 표정과 몸짓들은 기쁨과 신기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멀리서 지켜보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타는 목을 적시듯 행복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만들어주자는, NGO 단체의 광고로 펌프질을 할 때마다 솟구치는 우물을 파는 일에 누구라도 한 삽씩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칠 터였다.

아, 저 맑은 물로 내 안의 나를, 그리고 삶을 깨끗이 닦아 낼 수 있을까.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물방울을 보며 내 마음은 갑자기 울고 싶다.

어릴 때 기억으로 펌프 곁엔 언제나 작은 물 한 동이가 마련되어 있었다.

어른들은,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불렀고 남녀노소 누구나 서로 이르고 또 다짐하였다. 마중물 동이를 비우면 결코 안 된다고 언제나 꼭 채워 놓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타는 목을 채울 수 없다고. 마중물 동이에 물은 아무리 목이 마르고 급해도 물동이가 바닥이 나면 절대 안되었다. 언제든 펌프 속에 부을 수 있도록, 마중물은 물동이에 채워져 있어야 했다. 땅속 샘물은 아기 같아서 손을 잡고 마중하여 세상 밖으로 뽑어져 나오도록 데리러 가야 하는 것이었다.

살아오면서 늘 내게 마중물 같은 사람, 그리고 내가 마중물이 되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굴까.

물이 밖으로 솟구쳐 나오기까지 물은 갇혀 있었다.

차디찬 어둠의 땅속에 갇힌 물이 세상 밖으로 용솟음쳐 나오기까지는 물이 물을 도왔다. 마중물은 어둠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미 자신은 간 곳이 없고 대신 지금까지 갇혀 있던 지하수를 세상 밝은 빛 속으로 밀어내어 뿜어내준다.

펌프의 좁은 통로 어둠 속 나락으로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져 동굴 땅 밑에 흐르던 물을 끌어올린다. 깊은 땅속에 흐르고 있던 물이 솟구쳐 오를 때 세상으로 드러난 물은 생명 그리고 환희 그 자체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살면서 억지로 안 되는, 복을 지니면 얼마나 좋으랴. 거기에 성품까지 좋게 태어난다면? 살만한 천국이 되지. 모르긴 해도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이 그렇게 되도록 손바닥이 닳고 닳게 기도하는 삶이 인생사다.

내 자신을 기준하여 나를 본다.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어 지금의 내가 존재함을 생각할 때 그 감사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하 어둠 속에서 밝고 아름다운 하늘로 솟구쳐 올랐지만 이번엔 넓은 세상에 갇히고 말았다. 갇힌 줄도 모르고 허우적대며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았다. 욕망에 갇히고 자만심, 미움에 갇혀서 자신은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만을 전부인 듯 타인처럼 살았다.

어느 날 나를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겨울바람 앞의 허수아비처럼 초라한, 참담하고 당혹스러움이라니. 자신을 감당할 수조차 없었다.

그 맑은 눈물 같은 마중물은 어디로 흘러가버렸을까.



글 **임양숙 권사**



라떼파파 이야기

아이 셋을 키우는 육아 전쟁 속에서
진짜 아빠가 되어가는
한 초보 아빠의 소소한 단상을 적어봤습니다.



틱틱거려도 괜찮아! 1편

<1> 민의는 냄새 감별사

이번 글의 주인공은 삼남매 중 둘째 민의입니다. 외모, 식성, 성격 등 모든 부분에서 저를 가장 많이 닮은 녀석이죠. 그래서인지 고집이 센 저를 닮아, 6살임에도 아직까지 응가를 기저귀에다 보는 똥(?)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녀석이 1년 전부터 특이한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냄새에 유독 민감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행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웃기기만 했을 뿐 문제점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올해 들어서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음...무슨 냄새 맡았다. 맡았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도 없어, 무슨 주문을 외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줄 알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심할 때에는 이런 말과 함께 수시로 바닥에 손을 갖다 대고, 그 손을 자신의 코에 갖다 대며 냄새를 맡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뭐지? 당혹스러워진 저희 부부는 인터넷 검색을 하며, 이 녀석의 이상한 행동의 원인을 찾아보게 되었죠. 우리 민의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2> 복합틱

저희가 민의의 증상에 대해 내린 결론은 '틱' 증상이었습니다. 틱은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증상의 정도에 변화가 많고, 발생하는 위치도 자주 변한다고 합니다. 틱의 종류에는 가령 눈을 계속 깜박거리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어깨를 실룩거리는 것처럼 신체의 한 부분에서 틱이 발생하는 것을 운동틱과 킁킁거리는 소리, 기침 소리처럼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음성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틱은 아주 희귀한 질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학령기 아동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전체 아동의 10~20%는 일시적으로 틱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틱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과성 틱 장애는 5~15%의 아동에게서, 1년 이상 틱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틱 장애는 1%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데, 문제

는 민의가 운동틱과 음성틱을 동시에 보이는 '복합틱'의 증상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복합틱을 뚜렛병(Tourette's Disorder)이라고 하는데, 뚜렛병 아동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학습 장애, 강박증 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3〉 민의의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올까?

이런 틱 증상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부부교사로서, 저희는 자식의 문제 특히 어린 자식일수록 그 원인은 부모와 양육환경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이 더욱 당황스러웠고, 민의에 대한 죄책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의는 상대적으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자기중심성'과 '의존성'이 강합니다. 늘 자기 위주로 행동하고, 타인의 양보와 배려를 요구하죠. 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 다른 형제들과 자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농담반 진담반으로, "금쪽같은 내 새끼(TV 양육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인기 좀 끌겠는데?"라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무의미한 가정이지만, 민의는 외동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있던 일입니다. 민의가 너무 저희를 힘들게 해, '유치원에서 저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원 시킬 때, 선생님에게 민의의 유치원 생활을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시는 민의의 모습은, 저희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의 진짜 조용하고, 내성적이고요. 선생님 말도 잘 듣는 순한 아이랍니다."

아빠의 외모, 성격, 식성까지 빼닮은 둘째 민의

잉? 뭐지? 집과 유치원에서 민의가 보여주는 이 아득한 간극은? 민의는 지킬앤하이드, 아니 아수라 백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래보다 체격도 작은 민의, 개성이 강하고 끼는 많지만 내성적인 이 아이에게 기댈 곳은 아마도 집이었을까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처럼, 체격도 본인보다 크고 눈치 있게 행동해 예쁨을 받을 줄 아는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 성격 하는 금지옥엽 여동생까지 태어났죠. 이렇게 둘 사이에 끼인 '야곱' 민의에게 복합틱이 올 만큼, 우리 가정은 스트레스를 이 아이에게 준 것일까요? 물론, 엄마 아빠도 변명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분신술을 쓰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어떻게 더 할 수 있겠냐고요, 2살 터울에 3명, 그것도 한창 손이 많이 가는 6 · 6 · 4살의 양육에서 말이죠. 저희 부부의 육아에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편에 계속>

글 **김지원 집사**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될까?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은 '먹고 사는 게 가장 무섭다.'는 뜻이다. 그럼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보릿고개와 관련이 있다. 음력 4~5월 무렵이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풀뿌리나 솔잎, 소나무 껍질 등을 끓여 먹었는데, 이런 것들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비에 쉽게 걸렸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나올 때가 많았다. 여기에서 나온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요즘도 쓰이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 나무껍질을 벗겨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다.

먹거리 걱정이 없어진 우리는 비교적 풍요롭게 살고 있다. 풍족하다 보니 음식의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 먹기 싫어서, 배가 불러서, 건강을 위해서, 무심코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나 될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4314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는 5톤 정도 된다. 음식물 쓰레기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코끼리 2862마리 무게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잘 타지 않아 태울 수도 없고 땅에 묻으면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래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 40% 정도는 퇴비로 만들고 약 30% 정도는 동물의 사료로 20% 정도는 바이오 가스(전력생산)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10%는 추적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8000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게다가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악취나 토양 오염은 물론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도 발생한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은 885만 톤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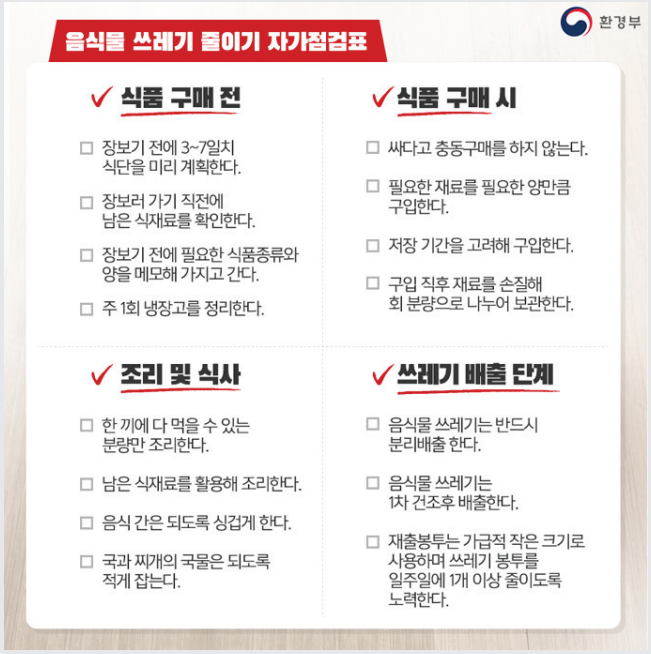
2020 기준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에 의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남겨서 버리는 음식물의 가치와 그 처리 비용을 모두 합쳐 낭비되는 돈은 20조원 정도라고 한다. '나 하나쯤 요만큼은 버려도 되겠지?' 하고 버리는 순간 요만큼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음식물이 버려져 낭비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줄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지구를 지키는 실천 제안

1. 냉장고 다이어트

일단 냉장고 안에 식재료와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장을 보기 전 그 재료를 위주로 식단을 계획한 뒤 필요한 식재료만 구입한다. 꼭 필요한 만큼 사고, 딱 먹을 수 있는 만큼 조리하는 습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다.



2. 자투리 재료 모아 요리하기

냉장고에 방치된 자투리 식재료는 버리면 쓰레기지만 잘 활용하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식재료가 된다. 식재료가 소량 남았을 때는 밀폐용기에 모아 두었다가 비빔밥, 볶음밥, 카레, 샐러드 같은 일품요리나 만두소, 국물 요리의 육수를 낼 때 활용할 수 있다. 구입한 지 오래된 과일은 설탕에 절여 잼을 만들어도 좋다. 양파 껍질은 육수 낼 때 사용하고 파뿌리, 귤껍질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달여 먹으면 좋다.

3. 식자재 바르게 보관하기

식자재를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관법이 중요하다. 채소는 구입 후 용도에 맞춰 손질 후 냉동고에 넣어두고, 생채소는 짓무르지 않게 세워서 보관한다. 고기는 포장을 뜯어 1회 분량으로 나눠 두고 생선은 손질한 후 약간 말려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쌀 잡곡 등 곡류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다.

4. 재활용률을 높이는 잘 버리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돼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확인하고, 버리기 전에는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서 부피를 줄인다.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배출과정, 수거과정, 운반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나 식당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꼭 짜서 배출하면 수분 함량과 염분 농도가 낮아져서 사료화,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병뚜껑, 뼈다귀, 은박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이물질을 분리한 후 꼭 짜서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한다. 특히 수분이 많은 수박 껍질과 같은 과일껍질 등은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말린 후에 배출하는 것이 좋다.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채소류	쪽파 · 대파 ·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 마늘 · 생강 ·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숫대
과일류	호두 ·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 살구 · 감 등 핵과류의 '씨'
곡 류	왕겨(벼의 겉겨)
육 류	소 · 돼지 ·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어패류	조개 · 소라 · 전복 · 멍게 · 굴 등의 '껍데기' 게 ·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기 타	계란 등 '알껍데기' 각종 '차'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음식물 쓰레기 20%만 줄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77만 톤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승용차 47만 대에서 나오는 배기량과 맞먹고,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과거 우리는 부모님께 '밥알 한 톨 남김없이 싹싹 긁어먹어야 한다'고 배웠다. '음식을 남기면 벌을 받는다' 라고도 했다. 잊고 있었던 그 가르침을 다시 실천해야 할 때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글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寫春記

사진으로 만나는 춘천의 기억









세월을 머금고 본 모습만 유지한 채 추억으로 남아있는
2006년 문을 닫은 육림극장의 모습입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드라마
'첫사랑(KBS2)' 촬영지 이기도한 육림극장은
영화 상영은 물론 인기가수 공연과 한 때는
결혼식장으로도 활용되었던 춘천의 메카였습니다.









1990년대 운교동 로터리 풍경.
당시 춘천의 유명 먹거리 골목이 자리한
운교동 로터리 일대는 명동의 닭갈비 골목과 함께
춘천의 명소였다.
학생들의 거리는 강원대학교 후문쪽 이었다면
직장인들의 모임장소로 유명한 지역은 바로 이곳!
낭만과 추억을 되새겨 봅니다.

자료제공 춘천문화원 Chuncheon Cultural Center 033-244-5106

세대 교감... 따뜻한 미소 너머 아름다운 성장

퇴계 꿈자람나눔터



'퇴계 꿈자람 나눔터'라는 기관명으로 2020년 동부디아코니아 법인 슬로건에 걸맞게 '섬김'의 자세로 아동들의 참다운 전인교육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꿈꾸고 같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개관하였습니다.



자료출처 : www.google.com

돌봄기관은 아이들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여 2019년 춘천은 큰골 꿈자람나눔터를 시작으로 퇴계, 석사 꿈자람나눔터로 이어서 센터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에 대한 시스템의 무지로 처음엔 좌충우돌 맨 땅에 해딩 하듯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으며 센터 못지 않게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들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맡겨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용하고 싶은 학부모들의 상담이 계속 되면서 돌봄을 정상적으로 시작할 무렵 코로나 19로 학부모도 센터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즈음 센터의 고심과 정부의 결단은 센터 안의 소독과 마스크 착용 철저 사용, 거리 두기 유지 등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정상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맞벌이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지혜의 숲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

었습니다. 그동안 외부 봉사자를 전면 중단하였고, 프로그램도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혜의 숲 선생님들의 만남이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정년 퇴임자로 구성된 지혜의 숲 선생님들을 모시기 전, 저와 우리 돌봄 선생님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정년 퇴임자들이시니 '얼마나 권위 의식이에 젖어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세대 차이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런 걱정은 선입견의 불과함을 첫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생님들의 온화한 미소와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시는 자세와 반짝이는 눈빛에서 저와 선생님들은 희망을 보았고, 기획을 꿈꾸었습니다.

지혜의 숲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담임제'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여덟분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숲 선생님들도 마음만 앞서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터에 대찬성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지혜를 서로 맞추어 발휘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꿈을 심고, 꿈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우리 미래의 돌봄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하였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처럼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위하여 고통스럽지만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 것처럼 때론 엄하게, 때론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진심을 다하여 서로 고민하고, 아동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아이가 성장통을 겪을 때 마다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같이 걷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한다면 세대를 뛰어 넘어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음을 지혜의 숲 선생님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퇴계 꿈자람 나눔터에 모인 우리들의 아름다운 세대 교감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쑥쓰러워 하던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품에 안기고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베드민턴도 치고 하면서 웃는 모습이 꼭 닮아가는 것을 보면 오늘도 행복해 집니다.

글 아름다운 이야기 편집부



단풍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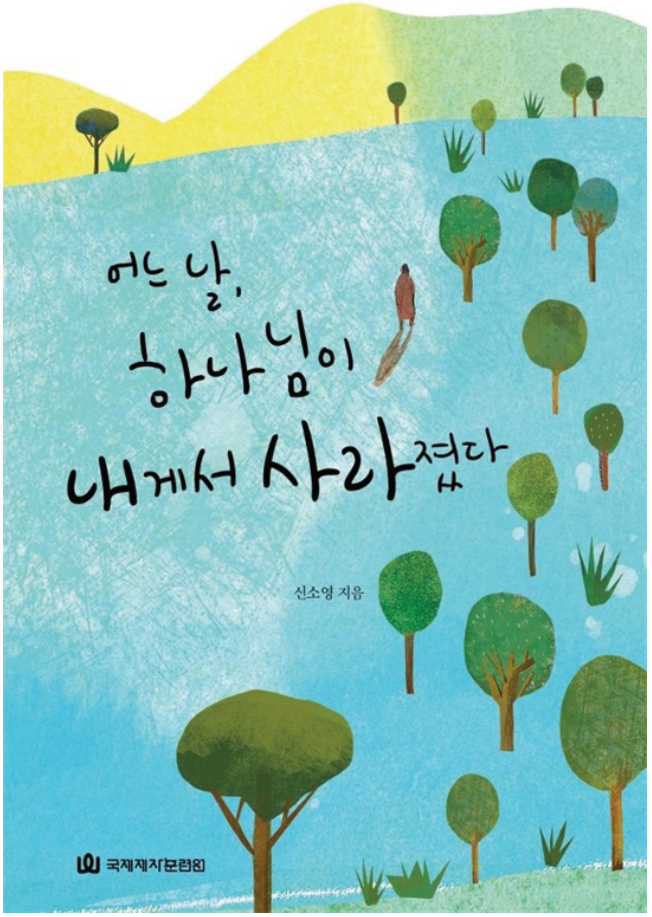
늦은 봄, 5년생 단풍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바람에 나부끼며 흔들리는 이파리는 사랑스럽다. 무성하게 자라 그늘을 만들고 가을날 단풍을 볼 생각에 들뜨기까지 했다. 내 집으로 옮겨왔으니 아침마다 잘 자라라고 말을 건넸다. 버팀목까지 만들어 주며 흔들리지 않고 뿌리내리기를 바랐다. 얼마 전 나무를 키우는 친구가 왔다.“당장 옮겨라. 탄력 받아 자라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마당 가운데 심어 놓은 단풍나무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걷잡을 수 없이 자라 나무 주변 잔디까지 다 죽는다고 했다. 애써 키운 잔디가 죽는 것뿐 아니라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 쓸어낼 수 없이 사방으로 잎이 날린다고 했다. 나무의 성장을 더디게 하려면 수시로 가지를 쳐주고 해마다 뻗어가는 잔뿌리를 잘라주라고 했다. 사람의 수고를 덜겠다고 자라는 나무를 끊임없이 못살게 구는 것도 못 할 짓이다. 저 혼자 볼 양으로 집채만큼 크는 나무를 화분에 가둬 분재를 만드는 사람을 흉보던 내가 아닌가!

막상 나무를 옮겨야겠다고 마음먹고 나니 나무에 거는 기대가 전 같지 않다. 옮겨온 나무를 다시 옮길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나무는 알았을 것이다. 그곳이 제자리가 아님을, 맘대로 잎을 떨궈도 성가셔할 사람 없는 계곡 어디쯤이 제 자리인 것을. 오래전 나도 옮겨 심은 나무였던 적이 있었다. 낯선 숲으로 이사와 뿌리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호되게 몸살을 앓았던가. 옮겨진 자리에서 30년도 더 살았다. 뿌리를 내리고 식구를 불렸지만 여전히 내가 자랐던 그곳이 그리웠다. 나무에게 미안하다.

글 **전경해 집사**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서 사라졌다



신소영 지음
국제제자훈련원 刊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희생도 감수하며 살아왔기에 이제 그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리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을 때... 그 클라이맥스를 앞두고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때 느낀 당혹감과 허무함은 배신감으로까지 전이될 정도였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성경에서 문득,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주인공들이 겪은 '멈춤의 시간'을 발견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서 기다려야 했던 7일,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한 뒤 애굽 왕 앞에 서기까지 요셉이 기다려야 했던 2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 어부로 돌아가 허탕을 쳤던 그날 밤.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은 그 시간이 궁금해졌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성경 속에 들어가 주인공들에게 말을 걸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작가는 이 책에 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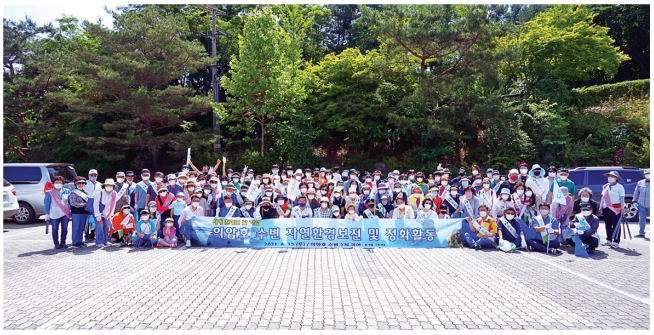
'하나님의 침묵'의 강을 믿음으로 건넌 세 남자-왕따 노아, 잘난 요셉, 불끈 베드로. 그들도 우리처럼 실패했고 기다렸고 아파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터치였다! 이 책은 성경 행간에 숨겨진 그들의 본심과 하나님의 진심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린 독특한 형식의 책으로 동화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친근한 어조로 들려주고 있다. 스스로 잘못된 공식에 빠져 어두운 순간을 경험하였던 이들 3인의 삶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마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일부임을 일깨워준다. 그래서 세 남자가 펼치는 아슬아슬한 믿음의 경주에서 강한 동질감과 깊은 위로, 지극히 작은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할 것이다.

동부소식

디아코니아 단신

총남선교회 주관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

6월 12일 토요일은 환경의 날을 맞아 총남선교회 주관하에 전 교인 의암호 수변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5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5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 의암호 스카이워크로부터 소양스카이워크에 이르는 구간을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아코니아학교 2단계 10기 교육

디아코니아학교 2단계 10기 과정이 지난 6월 13일에 시작하여 7월 24일로 모든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녹록치 않은 교육 환경이었지만, 여느 기수에 못지 않은 열정과 성실로 교육에 임하여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디아코니아학교 2단계 10기 수료자들이 우리교회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코니아학교 3단계 7기 봉사활동

디아코니아학교 3단계 7기 교육생 일동은 교육과 섬김의 일환으로 8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우리교회 법인 산하 춘천 남부노인복지관에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도시락키트를 전달하는 섬김과 복지관으로 도시락을 받기위해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부하는 섬김을 진행하였습니다.



디아코니아 국내 역사유적지 탐방

디아코니아 국내 역사 유적지 탐방이 9월 2일 목요일 부터 3일 금요일 양일간, 담임목사님 인솔 하에 30여명의 성도들과 더불어 진행되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 유적지인 신안군 증도 및 천사섬 일대를 탐방하며, 복음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문준경 전도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마음에 은혜로 새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디아코니아 장학금 전달식

2021 디아코니아 장학금 전달식이 9월 12일 주일 2부예배와 3부예배 시간 중 거행되었습니다.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된 본 장학금 전달식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대응을 감안하여 대표자 1인을 초청하여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서 교회가 지역사회, 특별히 강원도 출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소홀함 없이 섬길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아코니아학교 3단계 7기 졸업식

디아코니아학교 3단계 7기 교육생들의 졸업식 2021. 9. 12. 주일 저녁 찬양예배시에 거행되었습니다. 14명의 교육생 모두는 영예로운 졸업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겨나갈 디아코노스 7기 모두를 위해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실천신학회 제81회 정기학술대회

한국실천신학회 제81회 정기학술대회가 9월 25일 토요일에 교회 3층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는 학술대회 제1발표인 '코로나시대의 디아코니아목회'에 대해서 발표하셨습니다.



디아코니아 국내현장탐방

10월 18일, 20여명의 2021 디아코니아 국내현장탐방팀은 인천 해인교회 산하 법인, 내일을 여는 집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노숙인 쉼터, 폭력피해여성 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재활용센터 등의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귀한 사역을들 감당하는 현장을 탐방하였습니다.



디아코니아학교 1단계 19기 개강

디아코니아학교 1단계 19기가 지난 11월 07일 주일 개강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시작되는 11월의 첫 주, 금번 19기 교육생들은 새가족성도님, 기존성도님과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님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6주간 진행되는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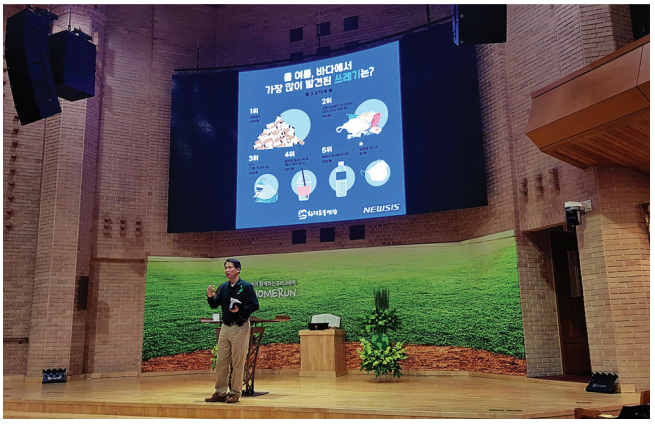


동부소식

예배부

2021년 환경주일

김한호 위임목사님의 '피조물의 신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피조세계의 회복에 대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Go Green 캠페인으로 녹색 옷을 입고, 녹색리본을 달아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한국 6.25 전쟁 발발 71주년

6.25 기념예배와 더불어 참전용사분들을 모시고 함께 디아코니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전용사분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짐과 더불어 조국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예배

2021년도 농촌교회와 함께 드리는 찾아가는 예배가 은혜 중에 마치었습니다. 금년에는 방동교회(1교구), 화방교회(2교구), 월송교회(3교구), 간척교회(4교구), 작실교회(5교구)의 5개 농촌교회를 교회 오전 대예배를 마친 후 각 교구별로 이동하여 농촌교회 오후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농촌교회와 농촌교회 담임목사님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돌아오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새벽 성찬식

2021년 7월 31일(토) 모든 세대가 함께 성찬의 은혜와 기쁨, 감사를 나누고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헌신예배

2021년 8월 8일 주일 저녁찬양예배는 교사헌신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강사는 총회교육부장이신 황세형 목사(전주시온성교

회)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교회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응원하고 격려를 보내었습니다.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2021년 8월 15일(주일) 강사로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원로)님을 모시고 [해방에서 통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춘천 목회자 연합회에서 준비한 연합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음악부 헌신예배

2021년 9월 26일 (주일) 입술이 아닌 한결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진정성 있는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음악부 헌신예배가 주일 저녁 찬양예배시에 있었습니다. 1부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 2부예배를 섬기는 여호수아 찬양대, 3부예배를 섬기는 시온 찬양대, 주일 저녁 예배를 섬기는 브니엘 찬양대, 수요 기도회를 섬기는 할렐루아 찬양대, 65세 이상 은퇴하신 어르신들로 구성된 갈렙 찬양대, 엘홉 남성 중창단, 미리암 여성 중창단, 오케 스트라 등 곡조 있는 찬양으로 섬기시는 찬양대원들이 모두 연합하여 기쁨의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교육부

2021 키즈예배

키즈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린이를 행복하게!”의 표어로 10월 3일 주일부터 오후 7시에 6층 유년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주~5주까지 기독교놀이, 미술활동, 실험과학, 요리활동, 특별활동 등 주차별로 테마가 있는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어린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열매 맺는 어린이 되도록 자라도록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1 EM

코로나로 외국어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영어예배(EM)가 “Know God and rejoice in Him.”라는 표어로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0주 과정으로 9층 소년부실에서 개강하였습니다. 영어로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고 주 안에서 교제함으로 기쁨을 누며, 영어성경 속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며, 영어로 읽고 말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영어로 배우는 것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diakonia)는 그리스어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으로 영혼구원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막10:45)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 섬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춘천동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디아코니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 기고를 받습니다”

아름다운이야기에서는 동부교회내뿐 아니라 외부의 좋은 글도 받아 게재 합니다.
시, 수필, 꽁트, 신앙 간증, 평론, 정보소개 등 종류와 상관없으며 내용은 반드시 기독교(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반기독교적이거나 특정 의도의 글
또는 상업적인 목적의 글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연중 언제든지 글을 접수하며 선정된 글에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동부교회 교우 여러분과 일반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이인호 010-6270-1744 / lihbingo@hanmail.net 아름다운이야기 편집부

표지사진 : 남이섬의 가을 (이인호 집사)

2021년 통권 78호

창간 2001년 5월 6일
발행일 2021년 11월 28일
발행처 춘천동부교회
발행인 김한호
담당교역자 정충
편집위원장 박경해
부위원장 이인호
사진 전경해
편집위원 임양숙, 정현숙, 김지원, 이예림

주소 (24353)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68-6
TEL 033)252-5959 **FAX** 033)241-1999
홈페이지 http://chdongbu.or.kr

춘천동부교회
Chuncheon Dongbu Presbyterian Church